

시론



박은성
편집국장

나라잔재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6개월이 넘게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광융합 기업들이 헐거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모처럼 희망을 던져주는 낭보가 한국광산업진흥회로부터 들려왔다.

다름 아닌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에서 해외바이어들을 상대로 795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위해 갖은 고초를 뒤로한 채 피담 흘리고 있는 국내 광융합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었는지를 생각하니 필자의 입가에 모처럼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어떻게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필자가 그 속내를 들여본 결과, '역

광산업진흥회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성과 이유있다

시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대목은 올해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환경에 맞춰 새로운 방식인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B2B)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B2C)를 도입해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병행했다는 대목이다.

특히 온라인 전시회 특성인 확장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 참가기업의 판로 개척에 나선데 이어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참가업체 제품을 흡수판처럼 소개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선보였다는 점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진흥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한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혁신 온(ON)택트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서 진흥회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 광융합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도 한 몫 거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진흥회는 연초부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구매력 있는 바이어 22명 초청하는 등 밀착 지원했다.

더욱이 해외마케팅센터를 활용해 최신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수출계약 성과도 달성하기 위해 진흥회는 구매 영향력이 있는 바이어 22명을 초청해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전시회 대비 바이어 숫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예상밖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초청 된 온라인 바이어는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또한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이다. 실제 진흥회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적화된 K-방역시스템을 구축,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에 진흥회 전 직원은 전시회 개최 기간동안 매일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 해외마케팅센터장과 해외 바이어 등에 대한 사전 검사를 진행

하는 등 청정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한 점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모범 사례로 손꼽힐 정도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기업에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감안해 참여기업의 기본부스 임차비와 공사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데 이어 해외바이어의 왕복 항공료 70%와 숙박비도 제공했으며, 원활한 수출 상담을 위해 전문통역 서비스도 시행하면서 수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판로개척에 숨통을 트여줄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진흥회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앞으로의 전시회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국제광융합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도 연계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세계 속으로 더욱 쪽쪽 뚫어나가는 진흥회의 험한 발걸음을 기대한다.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도 국내 광융합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주저 없이 투자해 온 진흥회의 직용매진(直往邁進) 행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社說

광주문예회관장 개방형 직위 해제 재고해야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장을 민간 전문가가 아닌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2019년 지역 문화계의 의견을 반영, 개방형 직위로 지정 후 공모를 거쳐 성현출 관장을 임용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선에 들어간 것이다.

문화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배치돼도 업무 기간이 짧아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인사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즉각 사과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당면 현안 해결 후 내년 상반기 개방형 직위로 재차 지정하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진일보한 조치나 진정성 있는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는 대면공연이 축소된 기간 문화회관 대규모 리모델링, 공연작품과 연계된 관광 상품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과정로 제시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등도 앞서 별도의 성명에서 어떠한 소통 없이 개방형 제도 도입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평가를 생략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개방형 직위 도입 당시에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선거캠프 출신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화계는 당장 이번에도 과거 사례처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이 마치 막으로 거쳐 가는 안식처 정도로 배치하려 한다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신력이 크게 흔들리는 실정이다.

광주는 누가 뭐라해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 품격있는 문화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책임 있는 기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먼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 문화수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부대 도모해야 한다. 특히 의도와 다르게 오해의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각본’, ‘능력 당한 기본’이라며 불쾌해 하는 문화예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SBS 드라마 광주 붕괴장면 사용 잘못됐다

광주 시민들이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힘든 상황이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붕괴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도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됐다. 갇혀있던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다쳤다.

유가족과 부상자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 그대로인데, 지상파 방송에서 당시의 참사 화면이 사용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3일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등장했다. 즉 중 인물들이 거주하던 주상복합 건물의 붕괴 소식을 전하는 뉴스 보도에 실제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포항 지진 당시 영상이 담겼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작진은 공개 사과했고, 다시보기는 중단됐다.

참으로 상식선을 넘어서 부적절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족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먹였다.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고,

심지어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가 지 받았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는 가운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고인 및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태에 광주시도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방송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관련자 처벌을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후진국형 인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진행형 재난에서 이번 SBS 드라마 사태는 용납되기 힘들 것 같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제작진은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광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안전이 우리 사회의 여전한 화두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아쉬움이 큰데도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더 외면해선 안 된다. 배려하고 함께 나눠야 할 때인 것이다.

기고



김병학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6기 일반행정분과위원장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탄소배출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급변 들어 유난히 더운 폭염과 열대야의 힘든 여름을 보냈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델타바이러스 변종 출현 등 인류의 삶을 위협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고 백신호브 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광주시도 시민들과 방역주체가 원팀이 되어 과학적인 동선 추적으로 접촉자를 최단시간 내 찾아내어 확진자수를 최소화하는 등 K-방역의 중심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참여예산제도, 직접민주주의의 참관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행정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도 그 일환이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광주시는 2011년 처음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2011-2012)를 구성한 이래 현재 제6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2021-2022)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7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일반시민인 분과위원들이 행정적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심사하고 있다. 필자는 그 가운데 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참여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가를 제6기 일반행정분과위원회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데 있어 좋은 사업이란 어떤 사업일까? 하나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공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이요, 다른 하나는, 행정적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행정적 ‘해야만 하는 일’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으나 각 부서검토 결과 부적합(법령과 조례위반, 현재 추진 중인 중복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익 등) 사업의 유형에 들어 안타깝게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사업신청은 사업공모와 1차 심사, 협치(컨설팅), 2차 심사, 운영위원회 회의, 총회 투표를 차례로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후 최종 시의회에 상정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에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거나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좋은 사업들 중 내용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경우 참여위원이 제안자와 상의한 후 전문가, 담당자 등과 함께 협치(컨설팅)를 통해 이를 심도 있게 조정할 수 있다.

2022년 시민이 제안한 총 514건의 사업 가운데 일반행정분과에 24건이 접수되어 최종 5건이 선정되었다. 그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소외기 보급’은 검토결과, 주택소방시설 계속 보급사업으로 중복사업에 해당되어 탈락대상이었다. 하지만 협치 후 이 사업을 제안자와 상의하고 실무하여 ‘노후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사

업으로 이름과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아파트 화재발생시 입주민이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사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꾼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광주시의 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유형은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등이며 예산은 총 125억이다. 이 가운데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사 과정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시정참여형의 경우, 최종 사업선정권한은 시민과 위원 각각 50%로 투표제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통해 활성화되고 완성된다. 시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믿고 신뢰하는 광주시정을 구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길 소망한다.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이 위험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전체 피해자 중 78% 이상이 10대라고 밝혀졌을 만큼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은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상에서 아직 자아 형성이 미숙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을 통해 범죄 전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거나 친밀 관계를 형성해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범죄 후에는 협박과 회유로 통제해 신고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이 같은 범죄 특성에 대응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위장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까지 시행된다.

여전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제대로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도 많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패턴과 특징들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말라고 했다. 아직 만개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사회 각 계층과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종현·장흥경찰서 공공안전정보경비계〉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경제적인 침투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다.

절대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 외의 폭력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으며,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각 가정, 관계기관 등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런 행위들을 사전 철폐, 안전한 학교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혹시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

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니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와 직접 상담, 설문조사, 신고함, 교사메일이나 학교명의로 된 메일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국번없는 117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117번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긴급상황일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다. 전화가 어려울 시 #0117로 문자하는 방법과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 수 있어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꼭 신고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